

머리 일곱 달린 뱀 (Seven Headed Serpent)

성경에서 참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,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중에 '하솔'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**여호수아**가 정복한 **갈릴리** 지역의 도시 중의 하나인데요(수 11:11). **가나안** 정복 전쟁 때 **갈릴리** 북부 지역의 도시와 성읍들을 공격하면서 유일하게 불살라 버린 도시이기도 합니다. 왜 특별히 **하솔**만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었을까요? 아마 **하솔**이 그 지역의 으뜸가는 도시(수 11:10)로 이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곧 북부 **갈릴리** 지역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전쟁의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.

하솔은 갈릴리 지역과 그 북쪽 지역을 통틀어 최고로 큰 도시였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번 등장합니다.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**여호수아**의 정복 전쟁에서 점령한 성읍으로 소개되었고요. **납달리** 지파에게 주어진 지역이면서(수 19:36). 사사 시대로 오면, **하솔** 왕 **야빈**의 군대 장관 **시스라**와 **드보라-바락**의 전쟁에서 이 도시가 언급됩니다(삿 4:2,17). 나중에 이곳 **하솔**은 **솔로몬** 때 **여호와의 성전**, 왕궁, **예루살렘** 성과 더불어 **솔로몬**이 건축한 세 개의 대표적인 도시들 중의 하나로 소개되기도 하지요(왕상 9:15).

성경에만 소개된 것도 아닙니다. 고대 **서아시아**의 나라들이 **가나안** 땅과 그 도시들을 언급할 때 **하솔**을 이야기하는데요. 기원전 2천년대에 기록된 문서들 중에서 **이집트**의 저주 문서(이집트 사람들은 저주하려는 적들의 이름을 작은 조각 상이나, 그릇, 또는 점토나 돌조각에 써넣고 그것을 깨뜨려서 무덤 또는 제의식을 하는 곳 주변에 파묻으며 저주하였다.)라든가, **파라오 아케나텐**(Akhenaten, r.1353-1336BCE 또는 1351-1334BCE) 시대에 기록된 **아마르나**(Amarna) 서고에서도 **하솔**을 이야기합니다. 췌기 문자로 쓰여진 **마리**(Mari) 서고에서도 **하솔**이 여러번 언급되고요.

이런 역사들을 비추어 볼 때, **하솔**은 북부 갈릴리 뿐 아니라, 북쪽 **가나안**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(앗수르 왕 디글랏 빌에셀의 때까지, 대상 5:26) 지중해 동쪽의 수 많은 도시들 중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도시 규모만 보아도 어마어마 하거든요.

하솔은 상부 도시(Upper city, 도시가 언덕과 평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, 언덕을 상부 도시로 평지를 하부 도시로 구분지어 부른다.)와 하부도시(Lower city)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, **하솔** 전체 지역의 크기만도 809,371 m²(244,835평)입니다. 일반적으로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지역의 전체 인구의 대략 10% 정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거주하였고, 그 외의 사람들은 도시 성벽 밖에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추정하는데요. **하솔**의 규모로 보아서 추정 가능한 주민의 수가 10,000-15,000명이니, 아마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인 **하솔**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수와 성벽 밖에서 농업이나 목축을 했던 사람

들의 수를 합치면, **하솔**이라는 지역에는 그 보다도 훨씬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. 가나안 땅에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는 정말 거대한 도시입니다! 통일 왕국의 수도였던 **예루살렘**도 **솔로몬** 시대에는 대략 5,000명, **유다가** 가장 번창하던 **히스기야** 시대에 수도 **예루살렘** 거주민이 약 25,000명, **예루살렘**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**헤롯** 왕가 때 **예루살렘** 함락 전 주민의 수를 80,000명으로 추산하는데, 이미 **여호수아** 정복전쟁의 때부터 **하솔**은 일반적인 도시, 심지어 수도 **예루살렘**을 뛰어 넘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던 거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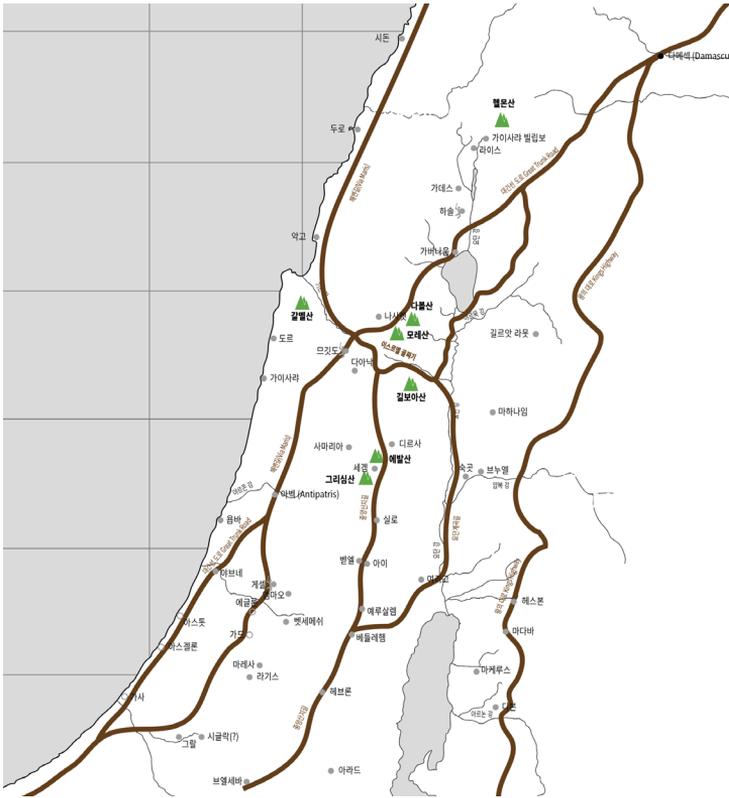
하솔이 이렇게 큰 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지리적인 요건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 **하솔**은 **갈릴리** 호수와 **요단** 강의 발원지인 **단**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. 지금은 그 면적이 5km² 정도로 쪼그라들어서 흔적만 남아 있는 **홀라** 호수(Lake Hulah)에서 **갈릴리** 호수로 흘러 내려가는 **요단** 강을 내려다 보는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.

1950년대에 이르러 이 호수가 오염되기 전까지는 **홀라** 호수는 남북으로 5.3km, 동서 폭은 4.4km가 되는 커다란 호수였습니다. 면적을 따지면, 14km²(4,235,642평, 서울대학교 면적)이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. 수심은 계절에 따라서 1.5m-3m 밖에 되지 않지만, 오히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될 수 있었고, 이곳에 **파피루스**들이 대규모로 자랐거든요. 1882년 이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습지 덕분에 이 곳은 검은 표범과 얼룩 표범, 곰, 야생 멧돼지와 늑대, 여우, 자칼, 하이어나, 바위 염소, 그리고 수달들이 번식하고 야생 조류들도 풍족하여 사람들이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. 주민들은 파피루스로 방석이나 돛자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**하솔**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.

물도 풍족하고, 그 주변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사를 짓기에도 최적의 장소이고, 고대 주요 도로(대간선 도로 Great trunk road)가 지나가는 **홀라** 골짜기에 위치해 있으며, 생

▼ **텔 하솔(Tel Hazor)** 하부 도시는 대부분 농경지이다 (구글 지도 참조).





▲ 유다와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고대의 도로들

활용품을 만들거나 기록을 남기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파피루스도 풍부한 이곳에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. 그리고 곧 이어 큰 성읍과 도시를 이루고, 요새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.

그래서, 주로 부유한 지배계층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하슬 상부 도시를 발굴해 보면, 시대마다 그

시대를 대표하는 성벽의 형태들과 육중한 성문, 거대한 현무암 궁전과 제의 장소, 비옥한 땅의 물자들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들이 곳곳

▼ 왕궁 가나안 시대



▼ 하슬로 들어가는 성문 아합시대



▼ 이중 성벽(Casemate Wall) 아합시대



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하지만, 이렇게 주요한 도로가 지나는 살기 좋은 땅에 살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. 그렇게 좋은 땅, 좋은 도시를 주변 나라나 지나가는 큰 군대가 가만 놔둘리가 없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하슬에서는 전쟁을 대비하는 높은 망대와 전쟁 때를 대비하여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로를 구비해야 했습니다. 이 지역이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.

2022년 하슬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며 아합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하던 시대 주거층(Area M, Strata VI과 VII, ca.840-732BCE)을 발굴하던 중 이집

▼ 수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로 내려가는 계단. 아합시대로 추정하게 깊이는 45m이다. 주거지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어서 직접 물을 길는 방식이다.



▼ 창고 아합시대 곡물 저장 창고



트나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인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던 **완화휘석(enstatite)**으로 만들어진 봉인 인장(Stamp seal)을 발굴했습니다. 이 지역은 지리적 장점과 그 장점이 주는 여러 혜택 때문에 외적이 자주 침입하였고, **이스라엘이 앗수르, 아람**과 같은 나라들과 전쟁으로 빼앗기고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 인장의 주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, 이 봉인 인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**이스라엘** 사람들이나 **페니키아** 사람들의 것이라고 추측합니다.

인장에는 창을 들고 있는 남자(영웅? 또는 신?)가 일곱개의 머리가 달린 뱀을 잡고서 찌르고 있습니다. 그 주변에는 몸통은 사자이고 머리는 독수리인 **그리핀**, 그리고 그 뒤로는 날개가 달린 풍뎅이, 그리고 날개달린 코브라와 원숭이 두 마리, 마지막으로 **이집트** 양식의 고리 모양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요. 이것은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신화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.

기원전 2600-2300년 사이(Early Dynastic III) **메소포타미아** 지역에는 용사의 신(전쟁의 신) **니누르타(Ninurta)**가 머리가 일곱 달린 뱀과 괴물들을 죽이는 신화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신화와 머리 일곱 달린 뱀의 이야기가 서쪽으로 전해지면서 **시리아** 지역의 **에블라**에서는 **핫두(Haddu 또는 하다드 Hadad)**가 **니누르타**의 역할을 하는 신으로 소개되었고, 기원전 13세기 **우가릿**에서는 **아나트(Anat)**와 **바알(Baal)**이 이 바다 뱀인 **툰나(Tunna)** 또는 **리탄(Litan)**을 물리치지요(KTU 1.3 III 34-42; 1.5 I 1-3; 1.6 VI 45-53).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고오는 괴물(악의 세력)과 같은 적군을 **툰**

나와 **리탄**으로 불렀지만 성경에는 이들을 용(탄닌 Tannin)과 **리워야단(Leviathan)**이라 부릅니다.

“**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(Tunna→Tannin)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, 리워야단(Litan→Leviathan)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**”(시 74:13-14)

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용이 머리 일곱 달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, **요한계시록**에서는 마치고 대 서아시아의 서사시처럼 구체적으로 그 외모를 묘사합니다.

“**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,**”(계 12:3)

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머리 일곱 달린 용, 또는 용과 **리워야단**

은 당시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오는 존재를 괴물처럼 묘사하고 부르는 매우 관용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**여호와**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관용적인 방법을 습관적으로 차용했지요. 마치 오늘날 **기독교인**들도 ‘전도’, ‘집사’, ‘참회’, ‘난장판’, ‘다반사’등의 **불교**에 뿌리를 둔 용어들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듯 말이지요.

하솔에서 영웅(신)이 머리 일곱 달린 뱀을 죽이는 인장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**하솔**이라는 지역이 전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고, **하솔**에 살았던 **가나안**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인장 목걸이를 가지고 다녔고, **이스라엘** 사람들 역시 그들처럼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민간 신앙처럼 이 인장을 부적마냥 가지고 다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

이 모든 것이 **하솔**의 유명세와 그 유명세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었을까요? 📖

▼ **하부 도시** 상부 도시에서 내려다 보이는 너른 평원이 하부 도시의 흔적이다. 아직 미발굴 지역이 많다.

